



2022. 5. 6 (금)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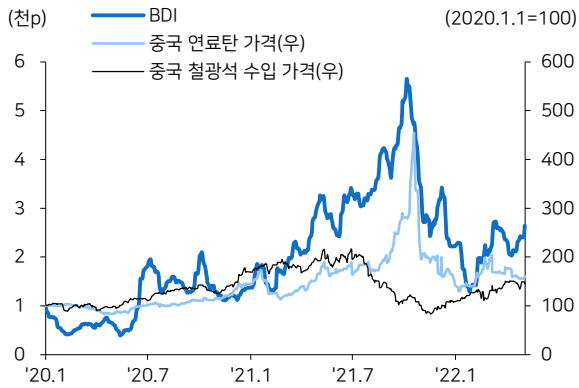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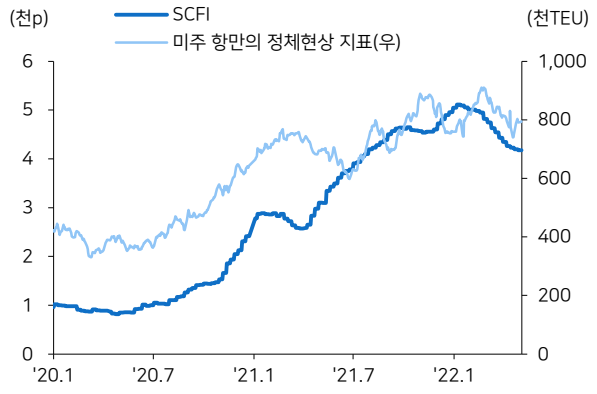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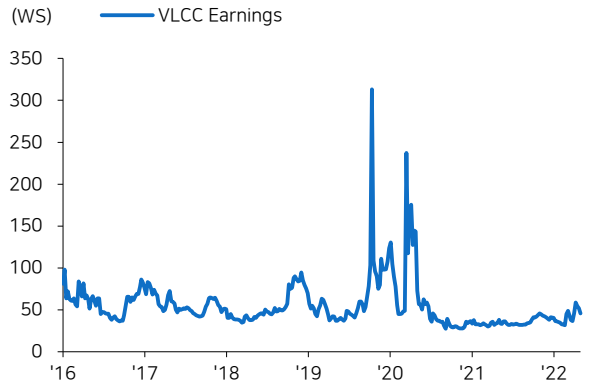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44p(+15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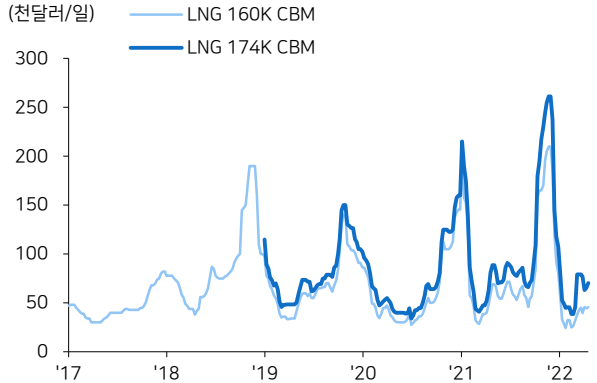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7.3(-18.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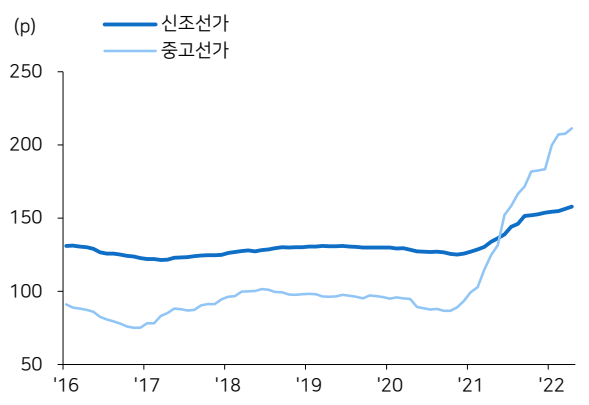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5.8p(-6.1p WoW)



LNG Spot 운임 45.8p(+0.3p WoW) 76.8p(+6.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8p(-0.2p WoW) 211.2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9.0p(+8.7p DoD) 103.2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FMC demands more data from container liner operators and alliances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3대 글로벌 컨테이너선 얼라이언스 (THE Alliance, Ocean Alliance, 2M)와 8개 개별 선사에게 가격 및 선복 데이터를 추가 요청한다고 보도됨. 컨테이너 항로별, 컨테이너 및 서비스별 금액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함. (Tradewinds)

### Grain outlook remains a puzzle as Ukraine war drags on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벌크선 시황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보도됨. Genco Shipping&Trading은 우크라이나 곡물물동량이 감소하며 미국, 브라질이 물량을 2022년 연내 일부 대체하며 톤마일증가를 전망함. 우크라이나는 3,000만톤의 밀을 비축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흑해항구 봉쇄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임. (Tradewinds)

### EU aims to block seaborne Russian oil transport to third countries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 수송하는 경우도 제재하려 한다고 보도됨. Bloomberg에 따르면 EU 회원국 소속의 보유, 용선, 운영 선박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수송을 금지시키려고함. 6차 제재안에 따르면 유럽은 원유수입은 6개월내로 중단, 석유화학제품은 2022년 말까지 수입중단하려함. 세계 최대 선박 운영 국가인 그리스와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Tough to go cold turkey': Europe knows breaking Russian oil and gas habit will be hard - Shell boss

Shell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감축과정에서 야기될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보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됨. 북아프리카 및 노르웨이 LNG 및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질문이 많지만 완전대체는 불가하다고 설명함.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가스 수입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임. 장기계약이 종료되며 2022년 수입물량은 추가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도됨. (Upstream)

### 김포공항 국제선 내달 재개...한국·일본 항공사 운항 신청

COVID-19로 2년여간 국제선 운항이 멈췄던 김포공항 국제선이 6월 재개가 유력해지며 한국과 일본의 항공사들이 우리정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했다고 보도됨. 윤석열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2년 이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에 양국이 공감했고, 국토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국제선이 6월내에는 재개된다고 언급함. (뉴시스)

### 조선 빅3, 글로벌 점유율 46%... 작년보다 11%p 늘었다

2022년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인 국내 조선 빅3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21년 동기대비 10.7% 상승한 것으로 보도됨. LNG운반선 대량 수주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2022년 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이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하다고 보도됨. 4월말 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LNG선에서만 전년동기 11척 발주에서 49척으로 증가함. 174,000CBM급 LNG선 기준 국내조선사가 63.2% 수주했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